차 보험료 최고 11% 오른다

하반기 정비요금 인상에 할인혜택 축소

운전자 부담가중 … "업계 자구노력해야"

정비요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4%에 인상되는 것에 더해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돼 하반기 자동차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수단 대신 사업비 축소 등 다각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뒤따르지 않아 운전자들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차(車) 보험료, 줄줄이 인상예고 = 지난 18일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2만1553~2만4252원으로 종전보다 18% 인상키로 했다. 정비요금이 1000원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는 1%의 인상 요인이 생기므로 이번 정비요금 인상으로 보험료는 평균 3.4% 오를 전망이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금융당국에 신고한 '자동차보험 특별요율 변경안'도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오토매틱 차량 운전자에 대한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현재오토차량에 대해 현대해상과 LIG손보는 보험료를 3.3%, 메리츠화재는 1.7%, 하이카다이렉트는 6% 깎아주고 있다. 또 ABS(미끄럼방지 제동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도 현행 3%에서 1.5%로 축소된다.

현재 승용차의 82%가 오토매틱 차량이고, 대부분의 신차에 ABS가 기본 장착되는 것을 감안하면 할인 혜택 폐지는 대다수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보험사 자구노력 절실" =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인상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영업비용이 커져 보험사의 적자 요인이 된다.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3월 73.7%, 4월 72.7%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달 76.7%로 껑충 뛰었다는 점이다. 6월 들어 손해율도 5월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7~8월 휴가철이나 9월이나 10월 추석 연휴기간이 있는 하반기는 통상 상반기보다 손해율이 더욱 높아진다.

하반기에 손해율이 더 올라갈 경우 상당수 보험사들이 할인 혜택 폐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오토차량 할인 혜택 폐지 등을 아직 적용하지 않은 보험사가 많지만 손해율이 계속 올라갈 경우 고육지책으로 이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으로 인한 3.4%, 오토매틱 차량 할인 폐지 1.7~6%, ABS 차량 할인폭 축소 1.5% 등이 합쳐지면 보험료 인상폭은 무려 6.6~10.9%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수단 대신 ▲사업비 절감 ▲보험사기 예방 ▲교통사고 감소 노력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회사원 김모(39)씨는 "가뜩이나 생활물가가 너무 올라 가계가 어려운데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에 앞서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을 먼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 키워드 경제

산유국 무턱대고 유가 못 올린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80% 가량은 두바이유를 포함한 중동산이다.

뉴스에 중동 정세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지역이 원유의 수급과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소비국 10위권에 들 정도로 원유 의존도가 높다. 유가가 평균 배럴당 1달러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가 0.15%포인트 오른다는 에너지 연구원 보고도 있다.

문제는 원유가 대체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 산유국들의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공급물량 조정을 통해 가격을 조정한다.

중동지역 정치상황도 원유가격 결정의 중요변수다. 중동에서 아랍과 이스라엘간 전쟁이 일어난 1973년(1차 오일쇼크), 이란 혁명이 일어났던 1979년(2차 오일쇼크) 직후에 산유국들이 갑자기 유가를 올려 극심한 물가고를 겪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산유국들이 원유가를 올릴 수는 없다. 대부분 산유국이 전적으로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가를 올리면 외화를 벌 수 있지만, 수입하는 공산품 가격도 올라 자국의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산유국들은 유가가 떨어지면 공산품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어 산유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불리해진다. 원유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원윳값이 뛰고 원유 값이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나라는 물가가 뛰어 경제에 타격을 입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 = (사)광주 경제·문화공동체

꽃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배웁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가 21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경양초교에서 개최한 '초등학교 꽃꽂이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꽃을 다듬고 있다. 광주본부는 어린이에게 꽃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7월말까지 13개 초등학교에서 이 행사를 마련한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한자리서 음미하는 세계 名茶

DJ센터서 내달 1~4일… 차·홈데코 전시회

세계 각국의 명차(茶)들을 한자리에서 맛 볼 수 있는 '2010 세계차(茶)·홈데코 전시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에서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세계 8개국에서 140여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녹차·뽕잎차·꽃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차(茶)와 세계 3대 명차 중 하나인 스리랑카의 우바, 아르헨티나 마테차, 항암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인도의 툴시차 등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차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DJ센터는 전시회 기간 중 국내 300여 차 생산업체들이 직접 참가한 가운데 '제3회 대한민국 차 품평회'를 개최하며 품평회 입상작 및 출품작들은'2010세계차·홈데코 전시회'기간 중 특별관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2일에는 명원문화재단 100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례 겨루기 대회 및 차를 마실 때 행하는 제반 다사법, 이에 수반되는 예의 범절 등을 선보이는 행다례를 시연하고, 3일 '세계다도시연', 4일에는 우리나라 전통 행다례법 시연 등 각종 부대행사도 열린다.

'녹차음식특별관'에서는 음식과 차의 궁합을 고려해 바로 일상에 적용 가능한 30여 가지 음식들이 전시되며, 녹차로 만든 각종 음식들을 시식할 수 있으며, '꽃차특별관'에서는 은'봄·여름·가을·겨울' 4가지 소주제로 각양각색의 꽃차들을 시음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화꽃차 만들기 체험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차 생산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농수산홈쇼핑, 롯데마트, CJ푸드시스템, 현대백화점,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매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원·달러 환율 1170원대 급락

중국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화가치가 급등(환율 하락)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0.60원 급락한 1,172.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5월 19일 1,165.10원(종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애초 1,188.00원으로 출발했으나 거래 실수로 처리되면서 개장가가 1,180.00원으로 정정됐다. 지난 주말 중국 인민은행이 변동관리 환율제 복귀를 선언하면서 위안화 평가절상 기대감이 높아지자 아시아 통화인 원화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으며 장 막판에는 1,169.00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면서 유로화 가치도 큰 폭으로 올라 1.24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코스피지수가 1% 이상 상승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이날 2800억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인 점도 환율을 끌어내렸다.

/연합뉴스

월드컵, 주부들 쇼핑시간 바꿔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장 보는 시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 11~17일의 오후 8시 이전 매출 비중이 75.3%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5.1%포인트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오후 8시30분 시작되는 한국 대표팀 경기가 있었던 12일과 17일에는 이 비중이 85%를 차지해 15.3%포인트나 높았다.

이 기간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고객 수는 8.5% 늘었다.

롯데마트 측은 오후 8시 이전 매출 비중이 커진 이유에 대해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쇼핑을 일찌감치 끝낸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11~17일 롯데마트에서 맥주는 작년 동기보다 76.9%, 스낵 안주류는 106.5%, 훈제치킨은 192.4%, 훈제오리는 155.7% 더 팔렸다.

/연합뉴스

직장인 65% "스펙, 취업후 도움 안된다"

공인 영어점수·봉사활동 경험 쓸모 없어

직장인 65%는 이력서에 쓰는 자격 요건인 '스펙'이 업무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취업포털 '사람이'이 직장인 1천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사 전 쌓은 스펙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응답자가 전체의 65.2%에 달했다.

입사 후 쓸모가 없어진 스펙(복수응답)으로는 '공인영어점수(4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봉사활동 경험(35.9%)', '한자능력취득(29.5%)', 'PC관련 자격증(29.4%)', '아르바이트 경험(26.7%)', '대학 졸업장(21.4%)', '어학연수 및 해외경험(21.2%)' 등 순이었다.

응답자의 77.5%는 업무에 필요한 스펙을 새로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묻자 '이직하기 위해서(35.5%)'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21.1%)', '자기만족을 위해서(16.4%)', '고용불안감 때문에'(6.8%)', '승진하기 위해서(6.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